

기획주제: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만남

제 5 주제

##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방안 모색

서혜란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1. 서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서관사의 앞부분을 장식하는 도서관들은 대부분 기록관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도서 외에도 국왕문서, 왕실문서, 관부문서와 민간문서까지 소장하였던 규장각이나 각종 장서목록과 함께 편지목록이 발견된 고대의 니네베도서관 등이 모두 그렇다.

프랑스혁명의 산물인 프랑스국가기록관(Archives nationales)이 1790년에 최초의 근대적 기록관으로 창설된 것을 필두로 해서 근대국가의 출현과 함께 공문서를 다른 자료들과 분리하여 관리하게 되면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기능이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도서관자료와는 다른 기록물의 성격과 기록관 고유의 사회적 기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록관의 이론과 실무가 발달되었고, 기록관리전문직(아키비스트)이 확립되었으며, 기록관 특유의 조직문화도 형성되었다. 그 결과 지금은 도서관과 기록관을 별개의 기관으로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유형의 기관 사이에는 차이만큼이나 중요한 근본적인 동질성이 발견된다. 도서관과 기록관 모두 인간의 지식과/또는 활동에 대한 문헌을 수집, 정리하여 활용시키고 후세를 위해 보존하는 사회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헌'이란 정보를 기록하여 전달해주는 모든 유형의 매체를 통칭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도서관과 기록관이 소위 '문화유산기관(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또는 '기억기관(memory institutions)'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sup>1)</sup> 더구나 1980-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도서관과 기록관 모두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인터넷환경은 두 기억기관의 협력에 필요충분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도서관과 기록관들은 다양한 형태의 상호협력을 실험하고 실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 보유국이자 인터넷강국인 우리나라이지만 그런 훌륭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흘러 다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도서관과 기록관의 발전은 세계적 수준에 많이 뒤떨어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하다. 그 중에서도 기록관은 그 숫자와 종류도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체계화도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도서관 쪽은 이론과 실무 모두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축적된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겠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너무 많이 남아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우리나라의 정보이용자들은 풍요로운 하드웨어 인프라 속에서 콘텐츠의 부족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다 유용한 정보를 좀 더 많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하고 장기보존하기를 원하는 현재와 미래의 정보이용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

1) 문화유산기관 또는 기억기관이라는 용어의 범주에는 도서관, 기록관과 함께 박물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의 제4장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실제로 많은 협력 프로젝트들이 도서관, 기록관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협력 파트너로 하고 있다.

서 그리고 도서관과 기록관 모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목적은 그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 2. 협력의 필요성

도서관과 기록관이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효율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든 정보를 찾는 이용자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이지 그 자료의 관리자가 도서관인지 기록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는 자료의 유형이나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신이 필요한 자료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적은 노력을 들여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정보기술의 발전이 그런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만약 도서관과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목록정보와 함께 자료 자체를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한다면 이용자는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에 접근하고 그렇게 모은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과 기록관은 상호협력을 통해서 도서관과 기록관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협력을 하는 편이 더 비용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의 도서관과 기록관이 디지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디지털이미지화 랩이나 디지털아카이브 리포지토리, 웹 서버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메타데이터생성 소프트웨어, 디지털권리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필요한 인력의 훈련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Bishoff 2004, 34).

세 번째 이유는 콘텐츠의 효과적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의 신뢰성이 검증되기 어려운 웹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보원인 도서관과 기록관의 디지털 콘텐츠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 권위와 품질, 교육과 연구 측면에서의 유용성, 안정성, 중립성,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의 유용성, 그리고 대중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이 기관들이 가진 디지털정보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요구가 클 수밖에 없고 그런 연유로 해서 많은 국가에서 도서관과 기록관 같은 기억기관의 디지털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Gill and Miller 2002). 대규모의 자원이 투입되는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결과물이 유용하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디지털화 프로젝트에서 도서관과 기록관 간의 협력을 요구하게 된다.

### 3. 협력의 장애요소

도서관과 기록관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두 기관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런 장애요소는 조직문화의 차이와 기술적 문제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 3.1 조직문화의 차이

도서관은 상호대차 등 정보공유의 전통이 강하고 정보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을 강조하는 반면 기록관은 유일본이고 특정기관 지향적인 기록물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공유보다는 독자적인 정보자료의 축적에 익숙하고 기록물의 보존을 중요시한다. 사서는 이용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지만,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아키비스트가 정보서비스에 관심이 없거나 사서가 자료보존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 간에 관점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사서와 아키비스트 간 교육적 배경의 차이라든가,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용어로 지칭하거나 또는 같은 용어가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경우 등 전문용어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도 결국 조직문화 차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조직문화의 차이는 당연히 두 기관의 협력을 쉽지 않게 만든다. 더구나 조직문화는 하루아침에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조직문화를 인정하고,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Melrose(2004, 201)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지역차원의 소규모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통해 “특히 서로 다른 부문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협력을 한다는 것은 실로 복잡한 과정이다. 참여자들이 모두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보고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3.2 기술적 문제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기록관의 소장 자료는 그 구조와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자료를 조직하는 방법론은 각각의 성격과 필요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 서로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개별 자료 단위로 메타데이터를 적용시키며 자료간의 연계 관계를 드러내는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반면에 기록관의 메타데이터에서는 기록물 간의 맥락정보가 대단히 중요하며 계층적 구조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

자료조직 구조의 이러한 차이는 도서관과 기록관 자료의 상호운용성을 가로막는 이유가 된다.

도서관과 기록관 간 협력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의 유형이나 소장 기관에 관계없이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Open Archives Initiative<sup>2)</sup>, Dublin Core/MARC/GILS Crosswalk<sup>3)</sup>, CIDOC CRM(Conceptual Reference Model)<sup>4)</sup> 등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포맷과 논리로 조직화 되어있는 도서관자료와 기록관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일이다.

## 4. 협력의 사례

최근 들어서 도서관과 기록관, 그리고 박물관 간의 협력 사례들이 세계 각국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기관들의 협력이 뚜렷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1 국가대표기관의 통합 : 캐나다의 Library and Archives Canada<sup>5)</sup>

캐나다의 문화유산부장관(Minister of Cultural Heritage)은 2002년 10월 2일에 National Archives of Canada와 National Library of Canada를 통합하여 Library and Archives Canada(LAC)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5월 21일에 Act to establish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가 발효됨에 따라 두 기관의 합병절차는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렇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두 기관의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재구조화나 혁신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변혁이므로 며칠이나 몇 달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완성되어야 할 일(Library and Archives Canada 2004, 3)이며 아직도 그 과정이

2) OAI는 콘텐츠의 효율적 배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운용성 표준을 개발하고 장려한다. OAI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가용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e-print archives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http://www.openarchives.org>>

3) 미국의회도서관에서 개발한 DC, MARC21, GILS 간 데이터요소 매핑으로 포맷변환에 사용된다 <<http://www.loc.gov/marc/dccross.html>>

4)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의 Comité International pour la Documentation에서 개발한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의 서로 다른 문화유산정보의 상호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객체지향적 도메인 온톨로지로서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메타데이터표준이 아니라 참조모델이다. <<http://cidoc.ics.forth.gr/>>

5) <<http://www.collectionscanada.ca>>

진행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캐나다 정부가 국가대표기관의 통합을 단행한 가장 중요한 명분은 캐나다의 '문헌유산(documentary heritage)'<sup>6)</sup>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보존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내에서 정보와 지식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Canada, Minister of Cultural Heritage 2005, 9).

LAC는 2005-2006년도 운영계획에 통합적 리더십의 확립, 재정적·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 같은 운영측면의 전략,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기록물과 출판물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전략, 그리고 문헌유산의 이용 확대를 위한 서비스 전략 등을 포함시키고 관련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서 다양한 유형의 자료에 대한 통합적 기술메타데이터 표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자료검색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 아직은 분리되어 있는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 AMICUS와 기록물데이터베이스 MIKAN을 통합한 AMICAN을 2007년까지 완성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기록물과 출판물을 불문하고 자주 활용되는 참고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테마별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 등은 주목할 만하다.

#### 4.2 재정지원을 통한 정책적 유도 : 미국의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IMLS)<sup>7)</sup>

IMLS는 1996년 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MLSA)<sup>8)</sup>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 연방기관<sup>9)</sup>으로서 연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미국 내 도서관, 기록관 및 박물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IMLS는 설립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협력과 파트너십<sup>10)</sup>을 장려하면서 특히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에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것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같은 지식자원기관들이 교육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학습기회

6) 문헌유산이라는 용어는 새로 제정된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법률개념으로서 캐나다에 관련된 모든 유형의 매체와 기록물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출처: Library and Archives Canada 2004. 3)

7) <<http://www.ims.gov/>>

8) MLSA는 기존에 도서관에 대한 연방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LSTA)와 박물관에 대한 연방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Museum Services Act(MSA)를 대체하여 1996년에 제정되었다. 2003년에 의회가 이 법을 재승인하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미국 의회 및 행정부가 공공 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과 박물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재정지원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9) IMLS 설립 이전에는 도서관은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박물관은 Institute of Museum Services에서 각각 관리되었다

10) IMLS가 정의하는 협력과 파트너십의 범위는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기관, 방송국, 민간기관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폭이 넓다

를 제고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sup>11)</sup>

IMLS의 재정지원을 받아 다양한 규모와 내용으로 실행되는 협력프로그램이 전국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컨퍼런스나 출판물을 통해 배포되고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IMLS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Martin 2003).

#### 4.3 통합 정책기구의 지원 : 노르웨이의 ABM-utvikling<sup>12)</sup>

1999년 노르웨이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and Church Affairs)는 의회에 백서를 제출했다. 원래는 박물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백서를 준비하는 동안 박물관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기록관을 모두 다루는 것이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 기관들이 모두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Resource 창설에 고무된 문화부는 백서에서 기록관,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국가기구의 창설을 요구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ABM-utvikling(Norwegian Archive, Library and Museum Authority)이다.

2003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ABM-utvikling은 기존의 Norwegian Directorate for Public Libraries, Norwegian Museum Authority, National Office for Research Documentation, Academic and Special Libraries를 통합한 정책기관이다. 이제까지 각각 다른 기관의 관할 하에 있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단일 기관의 우산 아래에 들어간 것이다.

ABM-utvikling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간의 공존과 협력을 지향한다. ABM-utvikling은 개별적으로는 세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세 부문의 단결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기도 하고<sup>13)</sup>, 교육 훈련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협력을 촉진하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노르웨이 문화에 대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kulturnett.no” 일명 Culture Net Norway를 운영한다. 이것은 원래 각각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던 박물관네트워크, 도서관네트워크, 기록관네트워크, 그리고 예술네트워크를 통합하여 포털화 한 것이다(Birger Østby 2005).

노르웨이에서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간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들 기관들을

11) IMLS, "Apply for Grants and Awards. Library-Museum Collaboration,"  
(<http://www.imls.gov/grants/l-m/index.htm>)

12) A는 archives(박물관), B는 biblioteker(스칸디나비아어로 도서관), m은 museum(박물관)을 의미하며, utvikling은 개발(development)를 의미한다 서로 언어와 문자체계가 비슷한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ABM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간의 협력을 의미하는 두문자어로 인식되고 있다(Hedegaard 2004, 290).

13) 'ABM'이라는 정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중앙과 지역의 정치인, 관료, 사회단체와 기관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실제로 올해 ABM-utvikling은 행정부 내 전자기술 활용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위원회에 문화 및 교육부문의 유일한 대표로 지명되기도 하였다.



통합하거나 같은 건물 또는 지역에 설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 4.4 통합 정책기구의 지원 : 영국의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MLA)<sup>14)</sup>

MLA는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up>15)</sup>가 지원하는 비정부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sup>16)</sup>이다. 블레어총리의 노동당 내각은 2000년 4월에 기존의 Museums and Galleries Commission(MGC)과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LIC)을 통합하면서 새롭게 기록관을 포함시켜 2000년 4월에 MLA를 설립하였다.<sup>17)</sup>

이 조치는 블레어 내각이 추진하는 정보접근과 평생학습 등 사회통합분야에서의 부문 간 협력 계획과 역사적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웹 서비스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기회 제고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Melrose 2004, 197). 즉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통한 보다 나은 사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식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현가능하며 이는 지식의 보고(寶庫)인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기록관의 파트너십과 협력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MLA의 중요한 기능은 박물관, 기록관 그리고 도서관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자료와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4.5 아날로그자료의 보존 : 영국의 NEWSPLAN<sup>18)</sup>

영국의 NEWSPLAN은 영국에서 발행된 지역신문들을 마이크로필름화하여 보존하고 이용자

14) <<http://www.mla.gov.uk>>

15) 영국에서 도서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은 1964년 교육과학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DES) 설립 이후이다. 그 이전까지는 재무부(The Treasury)가 영국박물관(The British Museum) 등 특정 도서관에 대해서 개별적 재정지원을 하는 정도였다. DES의 예술 및 도서관부(Arts and Libraries Branch)가 관장하던 예술, 공예, 박물관과 미술관, 정부소장 예술품, 그리고 도서관에 관한 업무는 1979년에 독립기관으로 설립된 예술 및 도서관청(Office of Arts and Libraries, OAL)으로 이관되었다. 1992년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 내각은 OAL의 기능에 방송, 영화, 체육, 역사적 건축물,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새로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DNH)를 설립하였다. DNH는 1997년 블레어총리의 노동당 내각에 의해서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DCMS는 예술, 체육, 방송, 음악산업, 언론자유와 규제, 문화재, 관광, 그리고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과 미술관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을 담당한다.

16) NDPB는 소위 '팔길이 정책(arms-length policy)' 즉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부지원원칙을 실천하는 영국의 독특한 행정제도로서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정부부처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부처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NDPB는 행정부처가 아닐 뿐 비정부기구는 아니므로 '비정부공공기관'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번역어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그 관례를 따랐다. 문화·매체·체육부 산하에는 40여개의 NDPB가 구성되어 있다.

17) 설립 당시의 명칭은 Resource·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였지만 기관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2004년 2월부터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로 개칭하였다.

18) <<http://www.bl.uk/collections/nplan.html>>

에게 활용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신문사, 역사협회 등의 협력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영국의 10개 지역도서관시스템에 맞추어 설정된 10개 지역별로 진행되며, 각 지역대표단과 영국도서관(the British Library) 및 기타 관련 기관들로 구성되는 NEWSPAPER Panel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결정한다.

NEWSPLAN의 출발은 1986년에 발표된 영국 남서부 지역의 열악한 신문보존상태에 관한 Wells 보고서, NEWSPLAN: Report of the Pilot Project in the South-West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보고서는 어떤 단일 기관의 능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협동과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각 지역별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British Library Newspaper Library의 주도 하에 지역신문의 마이크로필름화와 보존, 목록작성과 인터넷서비스가 추진되었다.

지역사 연구의 핵심자료로서의 지역신문 보존을 위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성공적 협력사업으로 정착된 NEWSPLAN은 1999년 3월에 Heritage Lottery Fund 500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2000년 6월에 NEWSPLAN 2000 Project<sup>19)</sup>를 시작함으로써 더 한층 추진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영국 내 각 지역의 도서관과 기록관, 대학과 신문사 등에 소장된 1325종의 신문 약 1300만 페이지를 약 3만 릴의 영구보존용 마이크로필름으로 변환할 수 있었다.<sup>20)</sup>

#### 4.6 디지털자료의 보존: 호주의 PADI<sup>21)</sup>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는 1993년에 “Towards Federation 2001: Linking Australians with their Heritage”라는 타이틀로 전국적 규모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의 목적은 호주의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계기관들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전자형태로 된 정보의 보존을 위한 지침 개발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도록 결의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도서관과 기록관 관련 다양한 기관들<sup>22)</sup>이 참여하는 PADI(Preserving Access to Digital Information)가 탄생하였다.

PADI의 목적은 (1) 디지털정보의 영구적 접근을 위한 전략과 지침 개발, (2) 정보제공과 홍보

19) <<http://www.newsplan2000.org/>>

20) The Newsplan 2000 Project. "Introduction," <<http://www.newsplan2000.org/>>

21) <<http://www.nla.gov.au/padi/>>

22)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Australian Counci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ACLIS), Australian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Australian War Memorial, Australia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ScreenSound Australia,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Commonwealth Scientific, Industrial and Research Organization(CSIRO),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Starlit Cooperative Multimedia Centre

를 위한 웹 사이트의 개발과 유지, (3) 관련 활동들의 발굴과 홍보, (4) 디지털정보의 영구적 접근을 장려하는 활동에 대한 각 부문간 협력을 위한 포럼 제공을 통해서 유용한 디지털정보의 영구보존을 꾀하는 것이다.

현재 PADI는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자료를 영구보존을 위해 축적하면서 이들 자료에 대한 주제별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여 접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보존 문제에 관한 토론그룹인 padiforum-I를 운영하고 있다. PADI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직면한 디지털형태로 된 정보자료의 장기보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성공적인 해결책을 찾은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4.7 통합검색 : 덴마크의 NOKS<sup>23)</sup> 프로젝트

NOKS(Nordjyllands Kulturhistoriske Søgebase)는 덴마크 Jutland 북부지역의 문화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이다. NOKS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에서 한 번의 검색으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에 소장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 가운데 자신의 정보요구에 관련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 이용자가 모든 기관에 소장된 자료를 무료로 통합검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가능한 한 많은 주제와 기록물을 포함시키는 것, (3) 다양한 기관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기술과 목록의 표준을 만드는 것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였다.

2001년 3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Jutland 북부지역의 여러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기록관 3곳, 문화사박물관 3곳, 미술관 2곳 그리고 지역중앙도서관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이 지난 10-15년 동안 구축한 지역의 문화역사 관련 자료의 디지털목록 약 115,000건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자료의 유형은 디지털사진 8,000건을 비롯해서 박물관, 문서, 도서, 잡지, 신문, 팜플렛, 지도, 그림, 녹음자료, 필름, 비디오 등 다양하다. 자료의 출처는 70%가 기록관이고 도서관과 박물관은 각각 15% 정도이다.<sup>24)</sup>

데이터베이스는 중앙집중식으로 하나의 서버에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른 포맷<sup>25)</sup>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NOKS는 이들 포

23) <<http://www.noks.dk>>

24) 기록관자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1937년 최초의 지역사기록관이 설립된 이후 매우 빠른 성장을 보인 덴마크 특유의 기록관 전통 때문이다. 덴마크의 지방행정구역이 275개인데 비해 지역사기록관은 450개관이 넘을 정도이다. 지역사기록관은 법적으로 자체 기록관 설립 의무가 없는 각종 단체, 협회, 영리기관, 개인들의 문서, 사진, 지도, 신문, 시청각자료, 도서 등 각종 민간기록물을 수집함으로써 지역사료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88년에 개발된 ARKIBAS는 275개의 크고 작은 지역사기록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록관 리시시스템이다(Hedegaard 2004, 293).

25) 도서관은 MARC, 기록관은 ARKIBAS, 그리고 박물관은 DMI(Danish Museum Index)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맷을 하나의 포맷으로 변환시키기로 하였다.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제시스템 역시 다양했다. 이것을 공통 포맷으로 변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탐색어들을 모두 모아 연계시켰다. 즉 모아진 12,000개의 탐색어리스트를 약 4,500개로 줄이고 하나의 탐색어가 서로 다른 기관들의 관련된 탐색어들을 가리키도록 구조화하였다. NOKS는 키워드를 사용한 전문검색과 구조화된 주제탐색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002년 2월에 인터넷에 공개된 NOKS는 첫 두해동안 10만 건 이상의 탐색이 이루어지고 각 기관마다 NOKS 검색에 바탕을 둔 참고질문이 크게 증가하는 등 활발하게 활용되었으며, 참여 기관들도 10여개 이상 늘어났다.

The Library Authorities와 The Cultural Heritage Agency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시스템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특히 Vejle County(VAKS)가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게 됨에 따라 2004년부터 NOKS2/VAKS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NOKS의 15-20개 기관과 Vejle의 10개 기관들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는 약 250,000건으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Dublin Core를 기본구조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 사서, 기록관 아키비스트,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공통의 매핑셋에 합의하였다. 한편 앞으로는 사용하는 키워드 수를 4,500개에서 500개로 줄일 계획이다.

지역 차원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통합 데이터베이스 사업으로 출발한 NOKS는 이제 덴마크의 국가데이터베이스로 확장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의 채택이라는 것이 NOKS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덴마크에서는 문화부(Ministry of Cultural Affairs)의 주도 아래 기록관계, 박물관계, 도서관계가 함께 참여하는<sup>26)</sup>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공통 표준의 채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Hedegaard, Hellum and Topholm 2005).

#### 4.8 통합검색 : 독일의 Internet Portal for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BAM)<sup>27)</sup>

독일의 남서부에 위치한 Baden-Württemberg주의 Library Service Centre Baden-Württemberg, Landesarchiv Baden-Württemberg, Foundation Museum for Technology and Labour in Mannheim가 공동으로 2001년 5월부터 독일연구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아 Internet Portal for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BAM)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05년 6월부터는 프로젝트 참가기관을 추가하여 BAM-Portal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유럽연합의

26) 워킹그룹은 The Danish State Archives, The Cultural Heritage Authority, 그리고 Danish National Library Authority가 각각 지명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27) <<http://www.bam-portal.de>>

“eEurope”사업의 실행계획에 통합시켜서 문화자산에 대한 유럽포털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sup>28)</sup>

프로젝트의 목적은 서로 다른 유형의 세 참여기관들의 목록, 검색도구(finding aids)와 디지털화된 문헌, 기록물, 그리고 박물관 자료를 하나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참여기관들의 데이터 중 ‘산업화’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 메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각 기관들이 소장 자료를 기술하는 방법<sup>29)</sup>이 서로 다른 문제는 Dublin Core를 기반으로 한 DLMeta-XML 메타데이터 포맷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현재 프로젝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포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의미론적 표준화 문제이다. 검색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색인어의 표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전거목록과 출처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록관의 색인 및 검색시스템을 조화시킬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 4.9 전문가집단의 협력 : 캐나다의 The Alliance for Libraries, Archives, Records Management(ALARM)

ALARM는 캐나다의 정보자원부문(IRS, Information Resources Sector)에 속하는 정보실무자, 협회와 노동조합들의 전문직 개발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1994년에 결성된 단체이다. ALARM의 결성에는 ARMA International(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dministrators), 캐나다아카이브스연맹(Canadian Council of Archives), 캐나다도서관협회(Canadian Library Association), 캐나다공무원노조(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sup>30)</sup>

ALARM의 설립배경은 (1)캐나다의 정보자원부문에서 일하는 약 5만 명의 노동자들이 수행

28) Landesarchiv Baden-Wuttemberg. “Internet Portal for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BAM) Future Perspectives.” <[http://www.landearchiv-bw.de/sixcms/detail.php?template=hp\\_artikel&id=11268&id2=11264&sprache=en](http://www.landearchiv-bw.de/sixcms/detail.php?template=hp_artikel&id=11268&id2=11264&sprache=en)>

29) 도서관은 OPAC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목록데이터베이스를 지역도서관소사업의 종합목록을 통해 제공하는데 목록기술은 표준화된 도서관목록규칙인 Rules for Alphabetic Cataloguing in Scientific Libraries(RAK-WB)에 따라 Machine readable Exchange Format for Libraries(MAB)의 포맷을 사용하고 있었다 기록관은 출처의 원칙을 따른 구조화된 기록물기술을 하며 MIDOS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목록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박물관은 FAUS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만 웹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박물관의 자료는 독일국가도서관의 주계명전자파일(SWD)을 이용하여 기술되고 있었다(Maer 2002)

30) 그 외에도 도큐멘테이션협회(Association pour L'avancement des Science et des Technique de la Documentation), 캐나다연구도서관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캐나다대학교수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 캐나다도서관학교연맹(Canadian Council of Library Schools), 국가지역아카이비스트협회(National Provincial and Territorial Archivists) 같은 협회와 단체들이 관여하였다

하는 기능이 같다는 점, 즉 그들이 아키비스트이든, 사서이든, 또는 레코드매니저이든 모두 정보 전문직으로서 수록된 매체에 상관없이 정보의 생애주기(생산, 평가, 저장, 검색, 복제, 전달, 조직, 보존 및 폐기)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고객(이용자)을 위한 것이라는 점, (2)비록 분야에 따라 용어나 구체적 활동은 차이가 나더라도 공통의 정보기술을 정보의 저장과 검색, 데이터베이스설계 등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3)모두 정보기술 분야 인력과의 어려운 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점, (4)정보자원 및 정보관리에 대한 최종 이용자의 통제력 증가,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가치 부여 방법, 원래부터 부족한 정보자원부문 예산의 감축, 보다 적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압박, 다운사이징과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감축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ALARM은 (1)그들이 수행하는 정보서비스의 부가가치적 요소를 명확히 밝히고, (2)계속교육기회를 늘리고, (3)인력의 다양성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적 목표를 세웠다.

ALARM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훈련과 연구/출판 분야에서 협력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자원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보서비스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개발에 힘쓰고 있다(Pemberton 1997).

## 5. 한국의 조건

도서관과 기록관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협력이 진척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sup>31)</sup>이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메타데이터의 미비로 인해 투자 대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sup>32)</sup>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과 기록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5.1 강점

#### (1) 우수한 정보화 환경

31) <<http://www.knowledge.go.kr>>

32)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개점휴업,” 전자신문, 2005 7 29

우리나라는 국민의 인터넷 이용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보화촉진정책으로 인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비롯해서 고도의 정보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 공공과 민간영역을 불문하고 업무처리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지식정보자원화사업을 통해서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산출물은 국가지식정보자원통합검색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조건 속에서 확산되는 정보화 마인드는 자연스럽게 도서관과 기록관 같은 기억기관들이 제공하는 고급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 (2) 기록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

참여정부는 전자정부로드맵(31대 과제)에 '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와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포함시키고 전자기록관리 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리혁신단을 조직하여 기록물관리법의 개정에서부터 각종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공공기록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자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아래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현재는 기록관리혁신 T/F로 명칭 변경)를 설치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을 완성하였다. 이 로드맵은 지난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어 향후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방향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기록관리 분야에 대해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만큼 전폭적인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기록관리 수준의 빠른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 5.2 약점

### (1) 취약한 협력 마인드

네트워크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조직의 패러다임은 '열림(openness)'과 '협력(partnership)'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관이주의에 매몰되어 기관 간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사례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조직의 폐쇄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능적 분업화의 원래 목표를 오히려 훼손하는 역기능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소재 한국관련 자료의 수집 사업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소 등 많은 기관들이 저마다의 명분을 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역할분담에 쉽게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과 인력의 중복투자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 정책결정구조의 분산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법에 각각 기반을 두고 있다.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정책과 기록관정책에 대해서 각각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평적 정책조정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정책결정구조가 이렇게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 한 도서관과 기록관을 기억기관으로 범주화하여 효과적으로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3) 전문성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은 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대표기관의 비독립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 인력의 미성숙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활동을 선도해 나가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특정 행정부처에 소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관장의 전문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두 기관이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도서관의 사서와 기록관의 아키비스트 모두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측면에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을 통한 질 좋은 정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여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사서의 경우에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인력이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고 제도적으로도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키비스트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사서들보다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숫자가 너무 적도 진출분야가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4) 부문 간 불균형

협력이 성공하려면 협력에 가담하는 당사자들의 대등한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대등성이란 당사자 집단의 수 같은 양적 척도와 함께 질적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발전 수준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기록관 쪽 사정은 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설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자료관과 기록관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고, 민간부문의 기록관 역시 설치된 숫자가 적을 뿐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서비스 수준도 높지 않다. 이처럼 두 부문 간의 양적, 질적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협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5) 표준의 미비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표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에 비해서 표준화의 경험이 거의 없는 기록관 쪽에서는 자료의 효율적 조직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록관 표준의 개발을 이제 시작한 상황이다.

## 6. 결 론

오랫동안 서로 분리 발전되어 왔던 도서관과 기록관이 기관의 기능과 자료유형에 대한 할거주의 대신에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대표기관들을 통합하는가 하면, 정책기관을 통합하거나 기관 간 협력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 그러한 지원을 받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보고가 관련 분야의 학술지나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이 발표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결코 우연으로 치부될 수 없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문화유산기관으로서의 도서관과 기록관들의 서비스 지향적 운영방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결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이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다소 거리가 먼 상황에 놓여있다. 단순히 세계적 추세를 따른다는 차원이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디지털정보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서비스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은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는 도서관과 기록관의 활발한 협력에 의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다소 성급한 듯하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두 부문 간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통의 관심주제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나 공동 연구프로젝트의 수행 같은 것들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가장 먼저 기획될 수 있는 일들이다.

둘째, 두 부문 모두 정보서비스 마인드와 기술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직들을 더 많이 배출함으로써 도서관과 기록관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셋째, 두 부문 간 디지털자료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공통의 표준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지식정보화를 촉진하는 유용한 전략임을 중앙

및 지방의 정책결정권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양건열 등. 2003. 주요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http://iarte.or.kr/data/dat/data\\_file1/DATA1114135153.pdf](http://iarte.or.kr/data/dat/data_file1/DATA1114135153.pdf)>.
- Birger Østby, Jon. 2005. "Cross-sectorial Challenges for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71th, August 14-18 2005, Oslo.  
 <[http://www.ifla.org/IV/ifla71/papers/017-Birger\\_Ostby.pdf](http://www.ifla.org/IV/ifla71/papers/017-Birger_Ostby.pdf)>.
- Bishoff, Liz. 2004. "The Collaboration Imperative." *Library Journal*, 129(1): 34-35.
- Canada, Minister of Canadian Heritage. Library and Archives Canada 2005-2006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Ottawa: Library and Archives Canada.  
 <[http://www.tbs-sct.gc.ca/est-pre/20052006/LAC-BAC/pdf/LAC-BAC\\_e.pdf](http://www.tbs-sct.gc.ca/est-pre/20052006/LAC-BAC/pdf/LAC-BAC_e.pdf)>.
- Cook, Hansel. 2005. "Librarians and Archivists, Archivists and Librarians: What's the Connection?" *Felicitier*, Issue no. 2 : 69-71.
- Dempsey, Lorcan. 1999. "Scientific, Industrial, and Cultural Heritage: a Shared Approach." *Ariadne*, 22(December).  
 <<http://www.ariadne.ac.uk/issue22/dempsey/>>.
- Gill, Tony. 2004. "Building Semantic Bridges Between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the CIDOC Conceptual Reference Model." *First Monday*, 9(5)(May).  
 <[http://firstmonday.org/issues/issue9\\_5/gill/index.html](http://firstmonday.org/issues/issue9_5/gill/index.html)>.
- Gill, Tony and Paul Miller. 2002. "Re-inventing the Wheel? Standards, Interoperability and Digital Cultural Content." *D-Lib Magazine*, 8(1)(January).  
 <<http://www.dlib.org/dlib/january02/gill/01gill.html>>.
- Hedegaard, Ruth. 2003. "Benefit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Working Together."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69th, August 1-9 2003, Berlin.  
 <<http://www.ifla.org/IV/ifla69/papers/051e-Hedegaard.pdf>>.
- Hedegaard, Ruth. 2004. "The Benefit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Working

- Together: a Danish Case of Shared Databases.” *New Library World*, 105(1202/1203): 290-296.
- Hedegaard, Ruth, Asboern Hellum, and Jens Topholm. 2005. “NOKS: a Searchable Cultural and Historical Database from Denmark: an ALM Project(Archive-Library-Museum).” *Library Hi Tech News*, 22(2): 19-20.
- Library and Archives Canada. 2004. Directions for Library and Archives Canada: Creating a New Kind of Knowledge Institution. Ottawa: LAC.  
 <<http://www.collectionscanada.ca/obj/012012/f2/01-e.pdf>>
- Maier, Gerald. 2002. “Common Internet Portal for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BAM Potal,”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68th, Glasgow, August 18-24, 2002. <<http://www.ifla.org/IV/ifla68/papers/023-144e.pdf>>.
- Martin, Robert S. 2003. “Cooperation and Change: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in the United States,”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69th, Berlin, 1-9 August 2003.  
 <<http://www.ifla.org/IV/ifla69/papers/066e-Martin.pdf>>.
- Melrose, Elizabeth Anne. 2004. “The North Yorkshire Unnetie Digitisation Project: From an Idea to an Opportunity,” *New Library World*, 105(1200/1201): 196-202.
- Pemberton, J. Michael. 1997. “Canadian Information Professionals Sound the ALARM and ARMA and SAA Reach Out,” *Records Management Quarterly*, 31: 62-64.
- Rayward, Boyd. 1998.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Functional Integraton of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History and Electronic Artefacts*, ed. by Edward Higgs. Oxford: Clarendon Press. : 207-226.
- Roel, Eulalia. 2005. “The MOSC Project: Using the OAI-PMH to Bridge Metadata Cultural Differences across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24(1)(March): 22-24.